

호랑이, 부상에 '울상'



마음 바쁜 KIA 타이거즈가 야수진의 부상에 '울상'이다.

KIA는 시즌 시작과 함께 아찔한 부상을 만났다. '캡틴' 김선빈이 지난 1일 SSG

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2루 진루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다. 고통을 호소한 김선빈은 엔트리 말소는 피했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김선빈은 부상 이후 11일 한화전까지 대타로 세 차례 나왔지만 소득 없이 2개의 삼진만 남겼다.

김선빈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2일에는 박찬호와 막강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던 김도영을 잃었다.

김도영은 이날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홈 슬러 이닝 도중 왼쪽 중족골 골절(5번째 발가락)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 핀 고정 수술을 받으면서 봄이 지나야 다시 김도영의 질주를 볼 수 있게 됐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나성범도 돌아오지 못했다. WBC 참가 이후 종아리 통증을 호소했던 나성범은 재활진 결과 근육 미세 손상이 확인되면서 결음을 멈췄다.

그리고 매 경기 KIA는 가슴 철렁한 장면들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9일 두산전에서는 변우혁이 파울타구에 발등을 맞았다. 병원 검진 결과 다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변우혁은 11일 '진정' 한화 이글스와 첫 경기에 스타팅으로 나서지 못했다.

벤치에서 대기했던 변우혁은 9회 대타로 나와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우려를 털어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또 다른 부상자가 나왔다.

이날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장한 이창진이 6회 런다운 상황에서 3루로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이창진은 10회 연장승부까지 모두 뛰었지만 통증으로 12일 한화전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 그리

김선빈 - 발목 부상

김도영 - 발가락 골절

나성범 - 근육 손상

이창진 - 팔꿈치 타박상

고 병원 검진 결과 전완근 타박상 진단을 받으면서 2-3일 휴식을 취한 뒤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창진은 이날 경기 전까지 19타수 8안타, 0.421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였다. 감이 떨어진 박찬호를 대신해 이창진이 톱타자로 나선 첫 날 부상을 당하면서 KIA는 12일 류지혁과 박찬호로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연이은 부상 속 더 큰 문제는 빈 틈을 메울 전력이 없다는 데 있다.

퓨처스 선수단은 지난 시즌에도 얇은 선수 층에 부상 선수까지 더해져서 포수들이 내야수로 투입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을 맞았다. 올 시즌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도 아플 수 없는" 여건 속 올 시즌 '다크호스'로 기대했던 내야수 윤도현도 부상으로 쉬어가고 있다.

지난해 손등 골절 부상으로 재활이 길어졌던 윤도현은 시즌을 앞두고 치른 연습경기에서 때때로 타격을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김도영의 부상 공백 속 내야의 새로운 바람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윤도현은 허벅지 부상으로 다시 호흡을 고르고 있다.

재활군에서 훈련 중인 윤도현의 퓨처스 합류에는 1-2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속 얇은 선수층으로 KIA는 고민 많은 4월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정호연, 1~4라운드 380분·48.4km 달렸다

정호연이 올 시즌에도 광주FC의 살림꾼으로 뛰고 있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정호연은 단국대를 거쳐 지난해 프로 무대에 뛰어난 2년차 선수다. 프로 첫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이내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은 그는 올 시즌에도 광주 중원의 핵심이다.

그의 부지런한 활약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1일 활동량(피치 킬) 데이터를 발표했다.

공식 부가데이터 제공 업체인 비프로11의 카메라를 활용한 광학 추적 시스템(Optical Tracking System)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연맹은 ▲전체 뛰 거리(km) ▲최고 속도(km/h) ▲스프린트 횟수 ▲스프린트 거리 등 4가지 항목의 '톱 5'를 월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1~4라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호연은 4라운드 경기에서 총 380분을 뛰면서 48.40km를 달렸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도 남은 거리를 달리면서 광주 공수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팀 내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린 정호연은 리그 전체로는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수원상성의 고승범으로 382분 동안 50.53km를 뛰었다. 인천유나이티드 신진호(382분·49.61km), 울산현대 박용우(383분·49.38km), FC서울 기성용(387분·48.81km) 그리고 정호연이 그 뒤를 이었다.

스프린트 부문에서는 이민기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4라운드까지 380분을 소화한 이민기는 스프린트 횟수(131번) 공동 3위, 스프린트 거리(2670m) 5위를 기록했다.

스프린트 횟수는 최소 2초 이상의 시간 동안 최소 14.4km/h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22.68



광주FC의 '살림'꾼 정호연.

km/h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린트 거리는 출장시간 동안 그라운드에서 스프린트의 속도로 이동한 총거리를 뜻한다.

'캡틴' 안영규는 패킹(패스)지수 4위에 랭크됐다.

'패킹'은 독일 축구선수 슈테판 라이나르츠와 연스 헤켈러가 지난 2014년 고안한 개념으로 패스 혹은 드리블로 최대 몇 명의 선수를 제쳤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수다.

324분을 뛰며 195차례 패스에 성공한 안영규는 패킹 296개, 평균 패킹 1.52개를 기록하며 울산 김영권·박용우, 수원 이종성의 뒤를 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맨시티 홀란 벌써 45골 ... EPL 선수 공식전 최다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선수의 공식전 최다 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홀란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1차전에서 후반 31분 맨시티의 3-0 승리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렸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존 스톤스가 머리로 떨구자 홀란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눈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 유니폼을 입으며 EPL에 입성한 홀란은 첫 시즌에 잉글랜드 축구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리그를 포함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리그 컵, 유럽클럽대항전 등의 공식전에서 가장 많은



배지환(피츠버그)이 1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휴스턴 에스트로즈와 경기에서 역전 스리런 홈런을 친 후 홈에서 슬램덩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지환 '슬램덩크'·최지만 '칼춤' 세리머니

피츠버그 승리 이끈 홈런포

9회말 끝내기 홈런을 치고서 그라운드를 돌던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이 홈플레이터 근처에서 헬멧을 벗어 오른손에 쥐더니, 힘껏 뛰어올랐다.

'박리거'를 꿈꾸던 시절, TV 중계로 본 강정호와 앤드루 매커전의 '슬램덩크 세리머니'를 자신이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돼 펼쳤다.

최지만(피츠버그)은 올 시즌 피츠버그 선수들이 홈런을 친던 더그아웃에서 벌이는 '칼춤 세리머니'를 했다. 코리안 메이저리거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었다.

1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에스트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배지환과 최지만이 동시에 짜릿한 순간을 썼다.

이날 배지환은 1번 타자 2루수, 최지만은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둘은 3일 신시내티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MLB 최초로 한국인 타자 동반 선발 출전 기록을 세웠고, 5일 보스턴 레드삭스, 9일 사카고 화이트삭스전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함께 선발 출전했다.

앞선 세 경기에서는 둘 다 무안타에 그치거나(3일과 9일), 배지환만 안타(5일·MLB 첫 홈런)를 쳤다.

12일에는 달랐다.

'형남' 최지만이 1회에 2루타를 몰고올 트러니, 2-2로 맞선 6회말에는 선두 타자로 등장해 휴스턴 오른손 선발 크리스티안 히비에르의 시속 148km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장의 솔로포를 터뜨렸다.

최지만은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해적의 칼'을 들고 유쾌하게 흔들며 세리머니를 펼쳤다.

네 번째 타석까지 삼진 2개 포함 무안타로 침묵하던 배지환은 4-4로 맞선 9회말 1사 1, 2루에서 라이언 프레스리의 시속 142km 체인지업을 걸어 올려 우중간 외야 관중석에 안착하는 '끝내기 홈런'을 쳤다.

배지환의 MLB 개인 통산 2호 홈런이자, 홈경기 첫 홈런이 터지면서 '같은 팀에서 함께 선발 출전한 한국인 타자가 모두 홈런을 치는 최초 기록'이 탄생했다. 한국인 타자가 같은 날, 같은 팀에서 안타를 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최지만의 상승세도 반갑다.

최지만은 2022시즌 종료 뒤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됐고, 11월 오른쪽 팔꿈치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10일까지는 19타수 1안타(타율 0.053)로 부진했던 최지만은 11일 휴스턴을 상대로 시즌 첫 홈런을 치더니, 12일에는 2경기 연속 홈런으로 기세를 이어갔다. 시즌 첫 멀티히트(4타수 2안타)도 쳤다.

배지환이 풀타임 빅리거, 최지만이 대형 FA 계약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이, 코리안 빅리거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엘링 홀란

홀란의 득점 페이스는 이들보다 훨씬 빠르다. 거침없이 골을 넣는 홀란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9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신기록을 더 세울 가능성이 크다.

우선 EPL 한 시즌 최다 골 신기록 달성도 유력하다. 이 부문 기록은 1993-1994시즌 앤디 콜과 1994-1995시즌 앨런 시어러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시즌 42경기 체제에서 34골을 넣었다.

지금과 같은 38경기 체제에서는 2017-2018시즌 살라흐의 32골이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홀란은 EPL에서 30골을 기록 중이다. 살라흐는 물론이고 콜과 시어러의 기록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골을 넣은 EPL 소속 선수가 됐다.

이날 득점은 홀란이 맨시티에서 치른 공식전 39번째 경기만에 넣은 45호 골이었다.

1992년 EPL이 창설된 이래 공식전 45골을 넣은 선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2003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 아던 윌트 판니텔로이, 2017-2018시즌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가 공식전 44골을 기록한 바 있다.